

타이완

관광 격월간 2026 Jan-Feb.

no.64



COVER STORY

차 한 잔에 담긴 타이완

과거와 현재의 도시, 자이(嘉義)

철도의 역사와 하카 문화를 만나다

타이완의 최고급 골프장 네 곳

한국-타이완 직항 완전 정복

차 한 잔에 담긴 타이완

TAIWAN
WAVES OF WONDER



Table of Contents



특집 기사

- 02 Cover Story
차 한 잔에 담긴 타이완



Cover Story

- 18 모든 도시에는 이야기가 있다
자이 평범하고 익숙한 도시에서
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만나다

- 24 특집 기사
철도와 하카 (客家) 마을이 만나는 지점 .
철도 기억을 따라 걷는 하카 산성 문화 산책

- 28 특집 기사
나이스 샷 !
타이완의 최고급 골프장 네 곳을 둘러보다

- 30 놓칠 수 없는 맛
가장 맛있는 오리 요리



- 34 내가 보는 한국 - 타이완
타이완에는 있고 , 한국에는 없는 것

- 36 타이완 키워드
한국 - 타이완 직항 완전 정복

- 38 한국 - 타이완 핫이슈
완행 열차만 서는 작은 마을 :
타이완 작가 천쓰홍의 『귀신들의 땅』을 찾아서

- 41 타이완 · 풍경 · 시
사랑의 강

- 42 FOUNTAIN 신활수 (新活水)
누구나 카라오케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 되는 곳 :
가오슝 쿠잉 용호탑 (龍虎塔)



모든 도시에는 이야기가 있다

창간일시 2012년 5월
발행호수 64
발행일자 2026년 01월 ~ 2026년 02월
대만관광협회 (台灣觀光協會) 회간
회장 / 발행인 簡余晏
명예회장 葉菊蘭
부회장 蘇成田、凌瓊、莊豐如
편집고문 鐘逸寧、陳婷妤、張仲宇、劉宇庭
발행 재단법인 대만관광협회
주소 타이베이 종사오동로 4 단 285 호 8F-1
TEL 886-2-2752-2898 FAX 886-2-2752-7680
E-mail yasir@tva.org.tw WEB www.tva.org.tw



타이완 관광청

FB 타이완홀릭

IG @taiwanholic_kr

발행처 故事 StoryStudio
총편집 涂豐恩
총감수 형소진
편집장 김이삭
기획 楊琇茹
편집 협력 林立文、劉雅涵
번역 台灣北菱股份有限公司、陳品芳、김혜진
교정 陳佳纓
디자인 李世斌、ziyin
프로젝트 매니저 冉揚、林宛蓁
주소 타이베이시 다통구 청더로 1 단 8 호 7 층 1 실
TEL 886-2-2369-5966
E-mail contact@storystudio.tw
https://storystudio.tw/

대만관광협회 서울사무소 (교통부 관광청)
주소 서울시 종구 삼각동 115 번지 경기빌딩 9 층 902 호
TEL 82-2-732-2357 ~ 8 FAX 82-2-732-2359
E-mail taiwan@tourtaiwan.or.kr
WEB www.tourtaiwan.or.kr

대만관광협회 부산사무소 (교통부 관광청)
주소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72 907 호
TEL 82-51-468-2358 FAX 82-51-468-2359
E-mail busan@tourtaiwan.or.kr
WEB www.taiwantour.or.kr

인쇄 經緯印藝實業有限公司
판매가 NT\$180
ISSN 3080-3462



中華郵政北台字第 1866 號 執照登記為雜誌交寄

차 한 잔에 담긴 타이완

Part 1

- 타이완 차 (茶) 의 정석 ⁽⁰⁴⁾

Part 2

- 타이완섬의 다산 (茶山) 기행 ⁽⁰⁶⁾
3 대 다산과 3 대 클래식 타이완 차

타이완 사람들에게 차 (茶) 는 단순히 갈증을 달래는 음료가 아니다 . 타이완의 일상과 문화가 깊이 우러난 , 삶 그 자체다 .



장소리스트



Part 3

타이완 차의 탐험 , 끊임없이 진화하는 우주 ⁽¹⁴⁾

Part 4

차를 담은 일상 , 현대 다석 (茶席) 의 우아한 멋 ⁽¹⁶⁾

손님을 맞이할 때 정성스레 차를 내어 대접하는 것은 물론 , 친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 곁엔 늘 차가 있다 .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여유를 가질 때 , ' 서우야오차 (手搖茶 , 세이커로 흔들어 만드는 타이완식 차 음료)' 한 잔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. 뜨겁든 차갑든 , 달든 달지 않든 , 취향은 달라도 ' 차 한 잔 ' 을 나누는 시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가깝게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된다 .

단순히 마시는 것을 넘어 , 타이완의 차는 각종 요리나 디저트와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. 번화한 도심이든 , 고즈넉한 산이든 , 발길 닿는 곳 어디서나 찻잔에 담긴 타이완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.

타이완 차 (茶)의 정석

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는 타이완 차 가이드



발효도 (發酵度)에서 시작하는, 나만의 타이완 차 취향 찾기

타이완 차는 차의 종류만 많은 게 아니다. 차 계열, 차나무 품종, 제다 (製茶, 차 제조 기술) 기술, 생산 지역 등 심오하면서도 방대한 지식을 요한다. 때문에 타이완 차를 처음 접하는 이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며 다양한 타이완 차 제품들 사이에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. 사실 타이완 차는 발효 정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, 즉 비발효차, 완전발효차, 그리고 부분발효차 (혹은 반발효차)로 나눌 수 있다. 비발효차와 완전발효차는 육대 다계 (六大茶系) 중 녹차와 홍차에 해당하며, 부분발효차는 '청차 (青茶)' 계열로, 우리에게 익숙한 '우롱차 (烏龍茶)' 라 불린다. 우롱차는 발효 정도에 따라 포종 (包種), 고산우롱 (高山烏龍), 동방미인

(東方美人), 홍우룡 (紅烏龍) 등 대중적인 차 종류로 다시 세분화된다. 타이완 차의 체계가 아직 낯선 초보자라면, 발효도부터 이해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풍미를 먼저 찾은 다음, 차나무 품종이나 생산 지역 등 심화된 단계로 점차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.

비발효차, 즉 녹차로는 솔에서 덜어낸 향과 녹차 특유의 감칠맛 (旨味) 이 일품인 신베이 쌌샤 (三峽) 지역의 '벽라춘 (碧螺春)' 이 가장 유명하다. 완전발효차인 홍차의 대표 주자는 닛토 (日東) 홍차의 발원지인 난터우 (南投) 위츠 (魚池) 의 '홍옥홍차 (紅玉紅茶)' 다. 타이차 (台茶) 18 호 '홍옥' 품종으로 만들어지며, 민트와 시나몬이 어우러진 독특한 품종향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. 이는 홍차 마니아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할 특별한 풍미다. 아울러 화롄 (花蓮) 의 '밀향홍차 (蜜香紅茶)' 역시 이름처럼 은은한 꿀 향과 깊고 부드러운 풍미로



글 / 린웨이이징 (林蔚靜) 사진 / 장지취안 (張紀詠)

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.

또 다른 차인 홍우룡 (紅烏龍) 을 추천한다 . 난터우 (南投) 를 구 (鹿谷) 의 '동정우룡'은 일본의 호지차 (烘茶) 와 풍미가 유사한 구수한 배화향이 특징이다 . 최근 타이동 루예 (鹿野) 에서 개발된 '홍우룡'은 우롱차의 향과 홍차의 진한 맛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, 그 독특한 매력으로 근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. 자신의 취향에 맞는 차를 찾았다면 , 이제 다양한 차나무 품종의 차를 탐색해 볼 차례다 . 난초를 닮은 청아한 향의 '청심우룡 (靑心烏龍) ', 부드럽고 따뜻한 밀크 향이 매력적인 '금환 (金萱) ', 자스민과 치자꽃향을 담은 '사계춘 (四季春) ', 그리고 옥란화 (玉蘭花) 향을 머금은 '취옥 (翠玉) ' 까지 . 각기 다른 품종의 차나무가 다양한 발효도의 제다 기법과 산지 등 여러 요소와 결합되면서 천의 얼굴을 지닌 풍미를 빚어낸다 . 이처럼 끝없이 변화하는 맛의 스펙트럼이 타이완 차가 지닌 가장 큰 매력이다 .

타이완 차 체험 : 시음부터 산지 기행까지

타이완 차에 입문하는 초보자라면 , 커피를 처음 접할 때 블렌딩 원두부터 시도하는 것처럼 상품화된 '블렌디드 티'로 타이완 차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. 타이완 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졌다면 , 싱글 오리진 원두를 맛보듯 산지별 단일 품종 차의 풍미를 비교해 보는 단계로 넘어가도 좋다 . 타이완 차의 매력은 단순히 마시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. 타이완 사람들의 일상 속에는 어디에나 차가 존재한다 . 차를 활용한 요리와 디저트 ,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다양한 형태의 다도 공간과 차품평회 , 그리고 차 산지에서 직접 경험하는 제다 (製茶) 체험과 문화 체험까지 , 타이완 차의 세계는 여행자가 발을 들일 수록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하다 .